

잊지 않겠다 했는데... 잊혀져가는 '세월호 기억들'

오늘 세월호 참사 7주기

7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아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상처를 어루만지고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기억의 숲'이 진도 팽목항에서 4.16km 떨어진 진도 백동 무궁화동산에 만들어졌다.

할리우드 배우 고(故) 오드리 헵번 아들 셉 헵번 페라의 제안과 시민들의 뜻이 모여 3200㎡ 규모로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은행나무 300그루를 심었다.

은행나무는 수명이 길고 생명력이 강해 지구 위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식물이기도 하다. 그 생명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더불어 살면서 18살에 못다 핀 꽃처럼 떠나간 아이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억의 숲에 심어진 은행나무를 자신들의 아들, 딸인 듯 애지중지 키우며 영원히 기억되면서 살아 남기를 바랐다.

그런 그리움의 무게가 너무 컸을까, 아이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슬픔이 너무 깊었을까.

기억의 숲에 심어졌던 생명력 강한 은행나무들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뽑히고 잘려나갔다. 2016년 4월 조성된 지 5년 만에 55그루가 잘렸다. 모든 생명들이 멸종한 방화기와 같은 시기도 이겨낸 은행나무였지만 유독 힘을 내지 못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기억의 숲을 조성, 관리 중인 트리플레넷 관계자는 좁은 부지에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며 300그루를 심은 게 원인으로 꼽힌다. 강한 생명력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나무로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던 만큼 아쉬움을 표시하는 유가족들도 많다.

팽목항서 1.6km 떨어진 '기억의 숲'

오드리 헵번 아들 제안 2016년 조성 은행나무 300그루 중 55그루 잘려나가

부치지 못한 편지 새겨진 '기억의 벽'

조형물은 세월에 빛바래져

그리고 아련한 기억들 아스라이

남아있는 은행나무 곳곳에서는 아이들 이름이 새겨진 동판과 사진, 노란 리본을 묶으면서 생긴 상처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유가족들이 떠나간 아이들인 것처럼 한 그루 한 그루에 감정을 이입해 아끼고 돌볼 게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준 것 같은 생각도 든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은행나무 숲 옆 '기억의 벽'도 아이들을 향한 가족들의 그리움이 곳곳에 묻어났다. 기억의 벽은 아이들에게 미처 부치지 못한 가족들의 편지가 새겨진 조형물이다.

7년이 지나면서 세월에 빛이 바랬지만 유가족들 에겐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참배객들에게는 희생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달린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안정현 군의 엄마 김정애씨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 주는 시민들로 감사함을 느낀다"며 "7년 전 세상을 떠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민주광장 시민 분향소 추모 발길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곳곳 세월호 7주기 추모행사

상주모임 진상규명 촉구 회견·연극 진도 팽목항 등서 추모식·추모공연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린다.

15일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16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광주시민 공동행동 촛불 정파, 진상 규명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과 연극 공연이 진행된다. 아울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7주기 광주시민분향소'는 오는 17일 오후 8시까지 추모객들을 맞는다.

제가 열려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전남에서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린다. '세월호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는 16일 오전 10시 목포신항과 오후 2시 목포역·남양중앙공원에서는 각각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세월호 잊지 않기 캠페인'을 연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기억식'이 열리며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도 팽목항 세월호기억관 앞에서 추모식과 함께 추모 공연이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노조 가입 의사는' '파업 시 노조와 회사 중 어디에 설 것인지' 광주글로벌모터스 면접위원 부적절 질문 논란

노동계, 책임있는 사과 요구

전국 최초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가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부적절한 질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사상생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태라며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이뤄진 GGM 채용 면접에서 일부 면접위원은 면접 대상자에게 '노조 가입 의사', '노조 활동 경력', '파업 시 노조와 회사 중 어디에 설 것인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청년들의 양심과 사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과 상생의 도시라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며 "광주시에 GGM은 공개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취업을 하는 것이 곧 생존을 의미하는 시대에 GGM은 일자리를 불모로 마치 사상을 검증하듯 면접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GGM 관계자는 이와관련, "면접 첫날 노조활동 의사 여부에 대한 질문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후 면접관들에게 노조 관련 질문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면서 "노사 상생과 관련한 질문을 하려던 것이지 노조에 부정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전' 서구문화센터 30일까지



광주 서구문화센터(광주시 서구 마재로 3)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금호촛불과 서구문화센터, 서구청소년수련관, 정의당 서구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서구문화센터 로비와 2층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옥진·김화순·바다·박성완·박태규·최재덕 등 6명 작가의 그림 20여점과 조각 작품 6점 등을 선보인다. 센터에는 노란리본을 함께 나누고 엽서를 써 마음을 전하는 참여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